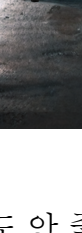


SOULR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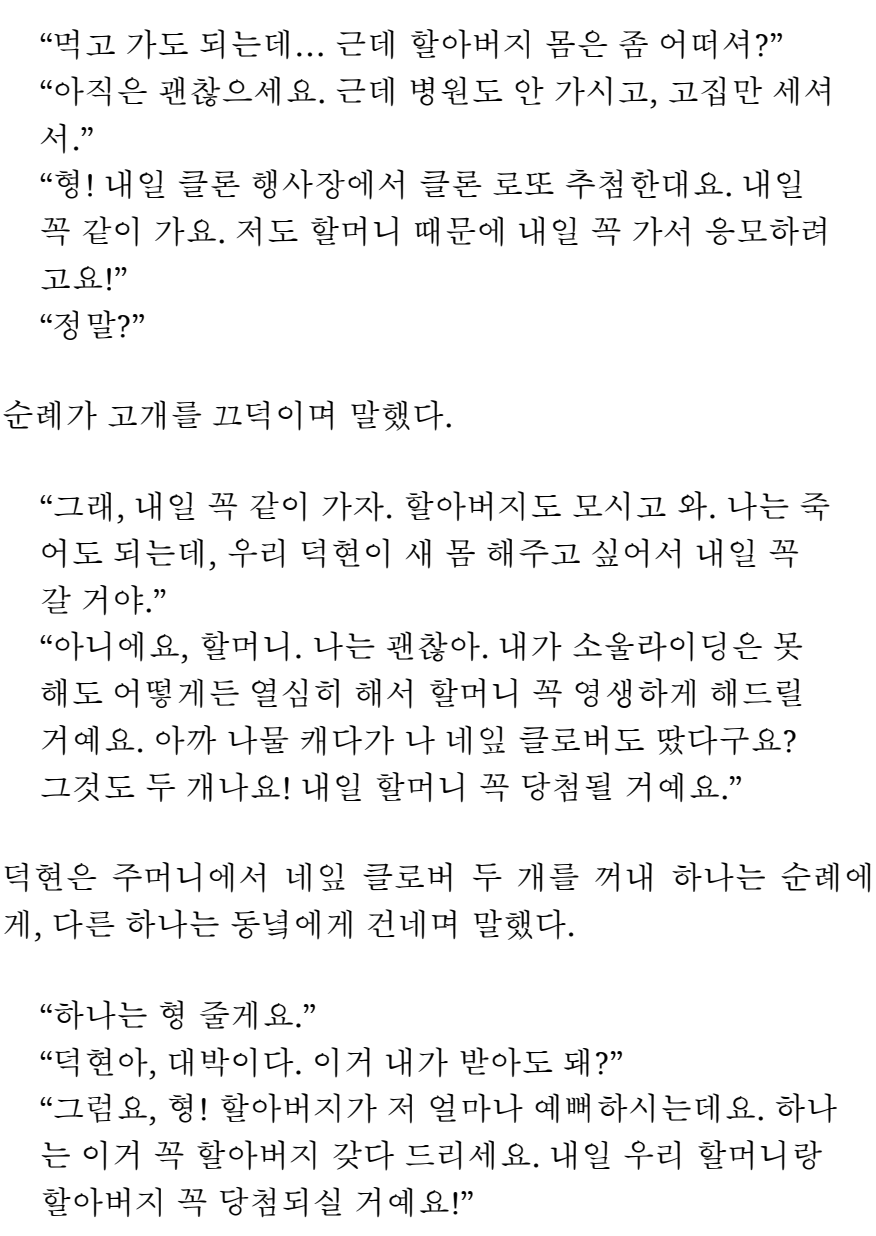
LAHOE HYUN AND THE MANTA STORY

EPISODE 4



‘콜록’

순례 할머니가 기침을 하며 동넨, 덕현과 함께 판자촌 거리를 걷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괜히 찬바람을 쐜서...”

“나야 괜찮은데 동넨이 너 밤도 못 먹고 어쩌냐... 얼른 우리 집에 가서 밥이라도 먹고 가.”

동넨의 말에 순례가 괜히 못 볼 모습을 보이게 해서 미안하다는 투로 대답했다. 덕현이 걸둑거리며 기들었다.

“그래요, 형! 밥 먹고 가요. 아까 할머니가 나를 밥 지어왔어요.”

“아니야, 덕현이 먹을 밥도 없는데. 나도 가서 할아버지 밥 차려드려야 해.”

동넨의 ‘할아버지’라는 말에 순례가 고개를 돌려 동넨을 바라보며 말했다.

“먹고 가도 되는데... 근데 할아버지 몸은 좀 어떠서?”

“아직은 괜찮으세요, 근데 병원도 안 가고요, 고집만 세쳐서.”

“형! 내일 클론 행사장에서 클론 로또 추천한다고, 내일 꼭 같이 가요. 저도 할머니 때문에 내일 꼭 가서 응모하려고요!”

“정말?”

순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내일 꼭 같이 가자. 할아버지도 모시고 와. 나는 죽어도 되는데, 우리 덕현이 세 몸 해주고 싶어서 내일 꼭 갈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나는 괜찮아. 내가 소울라이딩은 못 해도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할머니 꼭 영생하게 해드릴 거예요. 아까 나물 캐다가 나 내일 클로버도 따다구요?”

그것도 두 개나요! 내일 할머니 꼭 당첨될 거예요.”

덕현은 주머니에서 내일 클로버 두 개를 꺼내 하나는 순례에게, 다른 하나는 동넨에게 건네며 말했다.

“하나는 형 줄게요.”

“덕현아, 대박이다. 이거 내가 받아도 돼?”

“그럼요, 형! 할아버지가 저 얼마나 예뻐하시는데요. 하나는 이거 꼭 할아버지 갖다 드리세요. 내일 우리 할머니랑 할아버지 꼭 당첨되실 거예요!”

동넨이 울컥하며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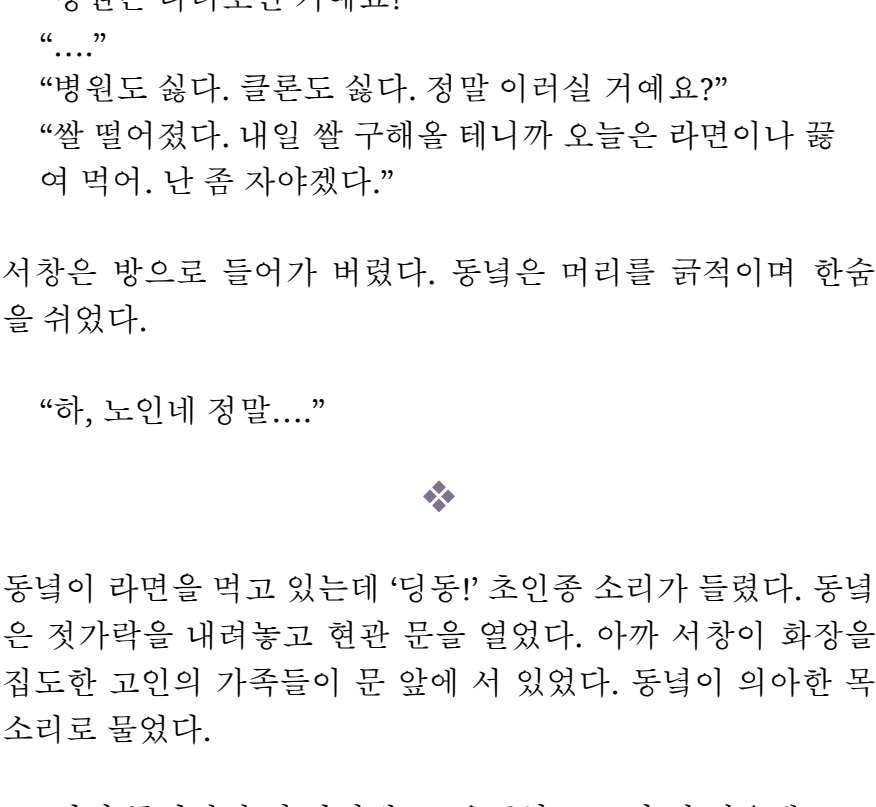
“너무 고맙다, 덕현아. 우리 할아버지도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럼 할머니, 좀 쉬시고 내일 봐요! 저 가볼게요!”

“밥 안 먹거?”

“네! 이거 얼른 보여드리고 싶어요! 덕현아, 고마워! 내일 보자!”



검은 양복을 입은 늙은 남자가 관 앞에 묵묵히 서 있었다. 동넨의 할아버지, 서창이었다.



그의 뒤에서 상복 차림으로 오열하고 있는 고인의 유족들과 달리 감정을 최대한 억누른 채 시종일관 무표정을 유지하는 서창의 표정은 무겁기가 이를 데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만이 죽는 시대, 얼마 남지 않은 화장터 중 하나였다.

“아이구 여보, 돈 없는 게 죄지... 미안해요... 나도 얼른 갈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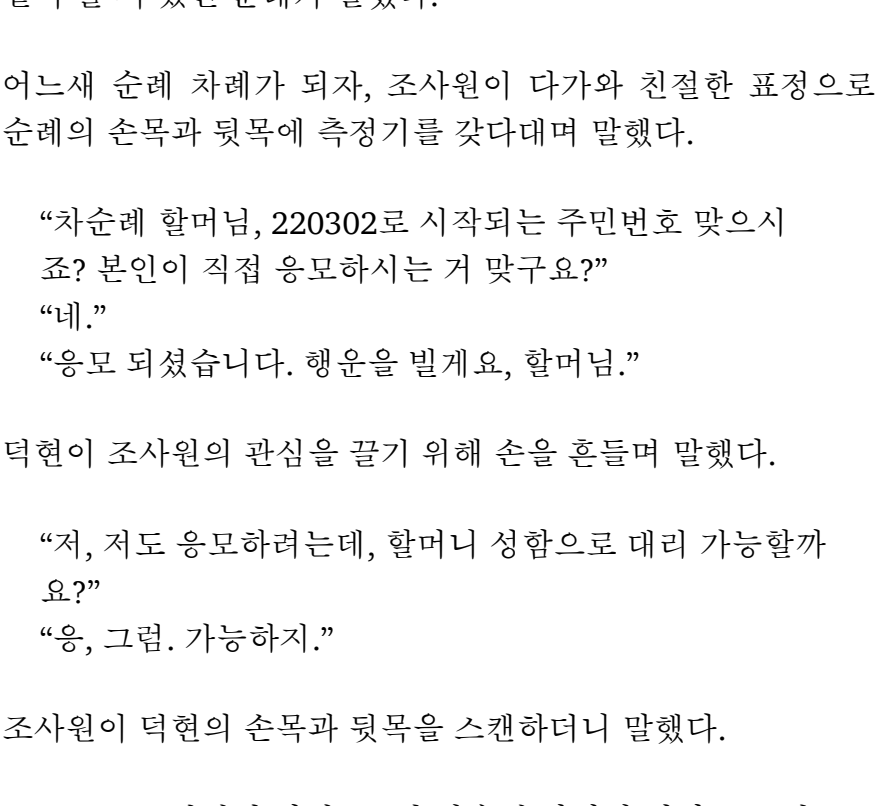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꼭 클론 시켜드릴게요!”

“됐다. 나 혼자 살아서 뭐 하나? 가난한 주제에 너희까지 낳은 내가 죄다. 미안하다 죽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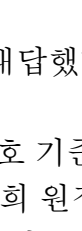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애송하죠. 이런 시대에 부모님 돌아가시게 하는 자식이 불효예요...”

서창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럼 이제 거행하겠습니다.”



관이 서창의 손에 화로에 들어갔다. 환한 불타는 관과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가족들, 그리고 그 사이에 무표정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서창의 모습이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서창과 동넨이 사는 곳은 화장터와 붙어 있는 허름한 집이었다. 화장을 끝마친 서창이 양복을 벗어 정리하고 손을 씻고 있는데, 동넨이 들어와 팔뚝을 열었다, 팔이 없는 것을 보고 말했다.

“화장비 또 안 받으셨어요?”

“돈 없어서 죽는 사람들한테 무슨 돈을 받냐.”

“저 그래도 오늘 빚 다 갚았어요. 이제부터 열심히 벌 거예요.”

동넨이 주머니에서 덕현에게 받은 내일 클로버를 꺼내 서창에게 건네며 말했다.

“그리고 저 오늘 덕현이한테 내일 클로버 받았어요. 내일 클론 행사 있는데 거기서 추천해서 몇 명 클론 해준대요. 할아버지 같이 가요.”

“나는 관심 없다.”

“할아버지! 자꾸 왜 이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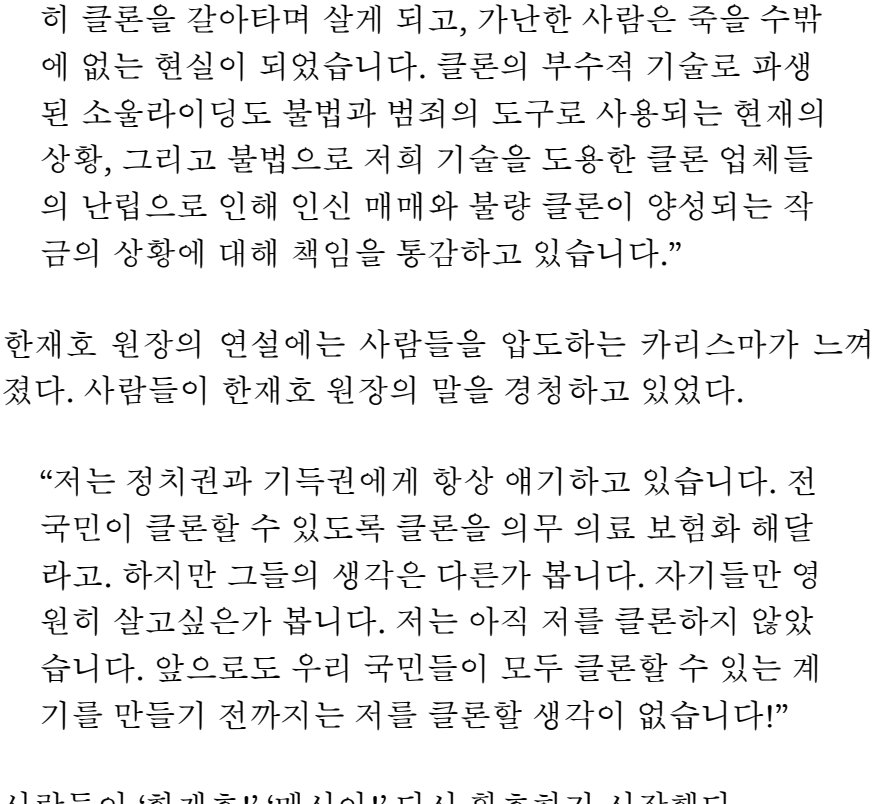
“그리고 너, 빚을 갚았다는 게 무슨 소리야. 너 또 소울라이딩 했냐?”

“그게 돈이 제일 잘 되는데 어떡해요.”

“돈 잘했다고 몸을 팔아?”

“아니, 할아버지. 일이 다 그런 거죠. 어차피 노동력을 제 공해서 돈을 번다는 게 몸 파는 거 맞잖아요?”

서창이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신성한 노동과 진짜 몸을 파는 소울라이딩이 같다고 생각하냐?”

“다를 건 또 뭐예요? 그리고 내가 뭐 좋으라고 일해요? 할아버지 클론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거지?”

“나는 클론 쥐도 안 한다. 그러니 너 내일 괜히 헛수고 말고, 여기서 내 일이나 도와.”

갑자기 서창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동넨이 뭐대꾸하려는 데, 서창의 기침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에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가가었다. 서창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기침을 하던 입에서 붉어 나온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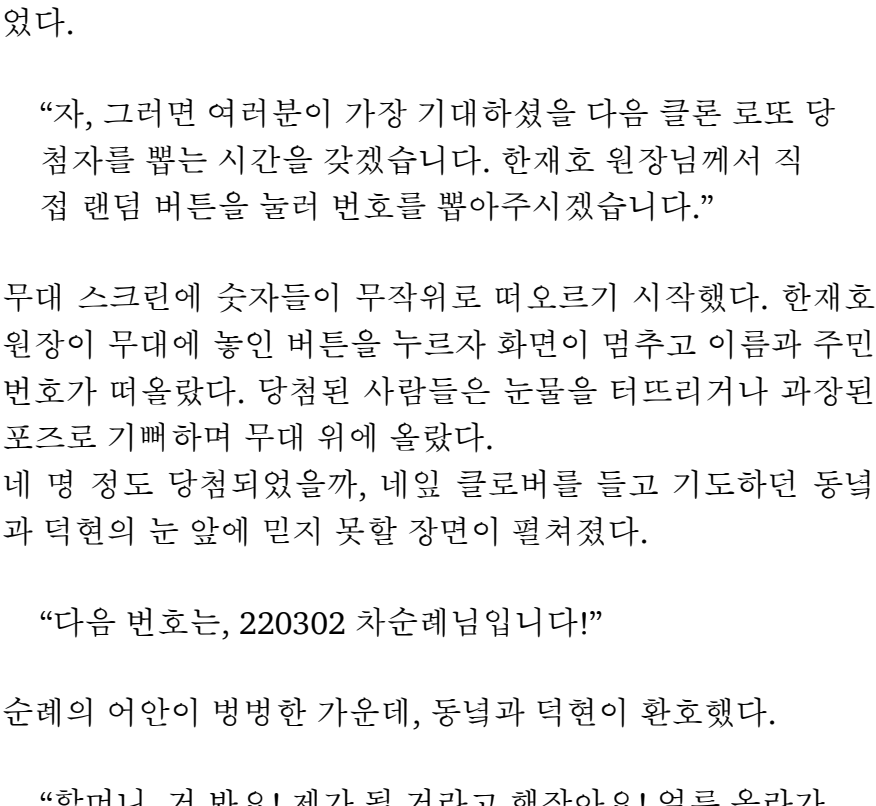
“아니, 이거 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난 할아버지 죽는 꼴 못 봐요.”

“사람은 원래 죽는 거야. 너 저 가마 작동하는 법은 알지? 나 죽으면 얼른 태워라.”

“진짜 이러기예요? 할아버지 살리려고 내가 정말 얼마나 힘들게 일 하는지 알아요?”

“나는 너한테 몸 팔라고 한 적 없다. 오히려 저지 말라고 했지.”

서창은 또 기침을 하더니 세면대로 가 아무렇지도 않게 손에 묻은 피를 씻어냈다.



“병원은 다녀오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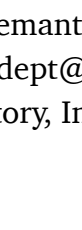
“...”

“병원도 싫다. 클론도 싫다. 정말 이러실 거예요?”

“쌀쌀해요. 내일 쌀쌀할 테니까 오늘은 라면이나 끓여 먹어. 난 좀 자야겠다.”

서창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동넨은 머리를 긁적이며 한숨을 쉬었다.

“하, 노인네 정말...”



동넨이 라면을 먹고 있는데 ‘딩동!’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동넨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현관 문을 열었다. 아까 서창이 화장을 집도한 고인의 가족들이 문 앞에서 서 있었다. 동넨이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까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유희합도 드린 것 같은데.”

“저, 그제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복으로 갈아입은 동넨이 화로에 관을 집어 넣었다.



“할아버지는 결국 안 오실 것 같아요?”

다음 날, 사람들은 북적이는 행사장의 클론 로또 옴모 대기줄에서 서 있던 덕현이 동넨에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결국 안 오실 것 같아요?”

다음 날, 사람들은 북적이는 행사장의 클론 로또 옴모 대기줄에서 서 있던 덕현이 동넨에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결국 안 오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이고, 그 분이 클론도 만드시고, 경험하시고... 진짜 너무 감사하십니까 아니에요. 늘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희 모두 원장님을 너무 존경하고 있습니다.”

조사원이 테이블에 놓인 장치에서 번호표를 뽑아 동넨에게 건넸다.

“여기 2068번입니다. 행운을 빌게요.”

동넨의 눈가에 눈물이 뿜 돌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다행이다 형, 그렇지?”

“그러게, 다 덕현이 네 덕인 것 같아. 고마워.”

동넨과 덕현 그리고 순례가 행사장으로 들어가자 가수가 축하 공연을 끝마치고 사회자가 무대 위에 오르고 있었다.

무대 위에는 캡슐 형태의 클론 기계가 놓여 있어 이 행사가 클론과 관련된 행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클론 행사를 열게 해주시 특별 한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오리엔티스의 한재호 원장님!”

휠체어에 탄 한재호 원장이 소연과 은성의 도움을 받아 무대 위로 올랐다. 사람들이 ‘메시아!’ ‘한재호!’ 연신 환호했다. 은성과 소연을 알아본 동넨이 괜스리 보일까 얼굴을 가렸다. 무대 위에 자리를 잡은 한재호 원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저는 인류의 꿈을 위해 클론을 실험을 하는데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비싼 비용 탓에 클론은 부자들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영원히 클론을 갈아타며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클론의 부수적 기술로 파생된 소울라이딩도 불법과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현재의 상황, 그리고 불법으로 저희 기술을 이용한 클론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 인신 매매와 불법 클론이 양성되는 악금의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한재호 원장의 연설에는 사람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사람들이 한재호 원장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저는 정치권과 기업들에게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정권과 수 있도록 클론을 의무 의료 보험화 해달라고.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기들만 영원히 살고싶은가 봅니다. 저는 아직 저를 클론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모두 클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전까지 저를 클론한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한재호!’ ‘메시아!’ 다시 환호하기 시작했다.

“오늘 같은 행사를 더욱 자주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저희가 노력해서 클론의 가격을 낮추고,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라도, 꼭 국민 모두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환호 소리는 점점 커져, 한재호 원장이 연설을 마무리 할 즈음에는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할머니, 저 분 엄청 대단한 분이네요? 진짜 국민을 사랑 하는 사람인가 봐요. 전 왜 몰랐죠?”

“그럼, 우리 한재호 원장님은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야. 워낙 언론에 나오는 것을 싫어해서서 몰랐을 수도 있지.”

사회자가 다시 무대에 올랐다.

“그럼, 오늘 클론 되신 행운의 주인공들을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무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회자의 신호에 맞춰 10명의 젊은 남녀들이 멋진 동작으로 무대 위에 올랐다.

대기하고 있던 가족들이 꽃다발을 건네주고 서로 얼싸안으며 무대 위에서 기쁨을 공유했다. 무대 화면에는 클론 전 모습과 클론 후 모습이 대조되며 나왔다. 광혼의 클론 전 모습과 클론 후 모습을 발간한 순례가 말했다.

“아이고, 우진이 아싸 저렇게 변했구나. 너무 멋지네.”

“꼭 저런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게 만나 싶네요. 어휴 멜트다운이나 생가라.”

순례가 동넨의 등짝을 찰싹 매리며 말했다.

“떼끼! 그럼 못 썬! 그래도 얼마나 축복이냐.”

“근데, 그럼 저 옛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현이 물었다.

“클래, 의식이 빠져나왔는데 어차피 그냥 죽지 않을까?”

“그런가? 근데 소울라이딩 할 때 의식이 나와도 그 몸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게 그런 나도 잘 몰라. 내가 소울라이딩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새 사회자가 다시 진행을 이어가고 있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셨을 다음 클론 로또 당첨자를 뽑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재호 원장님께서 직접 랜덤 버튼을 눌러 번호를 뽑아주시겠습니까?”

무대 스크린에 숫자들이 무작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한재호 원장이 무대에 놓인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멈추고 이름과 주민번호가 떠올랐다. 당첨된 사람들은 눈물을 터뜨리거나 과장된 포즈로 기뻐하며 무대 위에 올랐다.

네 명 정도 당첨되었을 때, 내일 클로버를 들고 기도하던 동넨과 덕현의 눈 앞에 믿지 못할 장면이 펼쳐졌다.

“다음 번호는, 220302 차순례님입니다!”

순례의 어안이 병병한 가운데, 동넨과 덕현이 환호했다.

“할머니, 거 봐요! 제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얼른 올라가세요, 축하드려요!”

순례가 덕현의 부축을 받아 무대 위에 올랐다. 홀로 덩그러니 남은 동넨은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

하지만 당첨자가 나온 때마다 동넨의 기대는 점점 줄어들었다. 이미 순례 할머니가 당첨된 시점에서 자기 몫의 운이 남아 있지 않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가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때,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Continued to ep.05

LAHOE HYUN & THE MANTA STORY

<https://themantastory.com>

e-mail : copyright_dept@themantastory.com

© 2024 TheMantaStory, Inc. All right reserved.